

영안 (요한복음 3:1-16)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이고 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영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육신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영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여는 시간 되기 바란다.

전도사 12장 13절 마지막부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잠언과 전도사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이다. 자기의 평생을 비추어 결론적으로 쓴 책이다. 거기에는 육신적인 교훈이나 원리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항상 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책이 들어 있는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속에 오히려 삶 속에서 받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많이 있어서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한 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 했으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거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 앞에 12절에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일 솔로몬 왕이 책을 지었으면 수없이 지었을 것이다. 대단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책 많이 쓰고 공부 많이 해봐야, 결국 의미없다. 몸만 피곤하다는 것이다. 솔로몬 왕의 인생의 결론이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일을 해도 하나님일 해야지 다른거 다 쓸모 없다는 것이다.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린 솔로몬이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론을 이야기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만한 말이다. 그래서 세상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여기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데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몸만 피곤한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므로 오히려 몸에 더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 바란다.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안될일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될일 없을 것이다. 반드시 성경과 같은 그런 인생이 다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작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 은혜 있기 바란다.

1. 영안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 찾아와서 대화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밤에 온 것이다. 2절에 보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줄 안다.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런말 안하고 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고 정곡을 찔렀다. 니고데모가 영생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바로 여러말 할 거 없고 바로 찔러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되니 이렇게 묻는다. 모태에 들어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영생 얻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 모태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니까 예수님이 좀더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바람을 가지

고 설명을 하면서 이 영적인 태어남은 눈에 보이는 태어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설명을 꼭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잡은 본문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는 너희는 니고데모처럼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단어를 이해못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다.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의 회원이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갔다. 거기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높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탄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심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었다. 만일 인간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서 바보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영적 눈 없으면 바보된다.

내가 그랬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옆에 있어서 몰랐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약국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 딸이 어렸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등을 발로 찼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많이 약해져서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발을 잡았더니 넘어졌다. 그리고 나서 보니 히죽히죽 웃는 것이다. 돌은 것이다. 저 사람이 돌았구나,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해야되는데, 그런데 돌았구나 하고 끝나버렸다. 그리고 돌았다는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했다. 그냥 넘겨버렸다. 한 3-4미터 날라서 나를 찼는데도 나는 기분나쁜것도 없었다. 미쳤기 때문에.

또 한번은 전라도에서 약을 지으러 왔다. 나는 부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약을 한달치를 지었다. 한달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런데 차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약사는 낫는다니 기분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또 지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나를 안고 놓지를 않는 것이다. 여자였다. 할머니는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 당황했다. 그리고 그 때 교회 여자 청년이 바깥에 앉아 있었다. 안고 놓지를 않는 것이다. 겨우 떼어서 약지어주고 보냈다. 저녁에 7-8시 정도는 약국이 바쁜 시간이다. 전화가 왔다. 부산역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그 역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 역에 와서 자기랑 놀자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돌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 시간에 보통 미친 사람이 역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까지도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도 몰랐다. 정신이 돌아서 뭔가 육신적인 남녀관계를 원하는것도 몰랐다. 영안이 안 열리면 옆에 있어도 몰라서 바보된다. 모른다. 복음도 알고 난 후에 이러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야기 안해도 알게 된다. 거짓말도 알게 된다. 완전 영적 문제가 아니어도, 숨길수 없는 수준의 영적 문제라도 말안해도 알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영안이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하나님과 안 통한다. 큰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영적으로 하는데, 나는 매일 육적으로만 하면 안통한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다. 전혀 통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도 모른다. 바람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게 안보이냐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영안이 너무나 중요하데 영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수도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난리날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영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영안을 가질수 있나? 답은 간단하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모르면 백날 노력해도 눈이 안 열린다. 복음을 바

로 알면 일단 올바른 영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깊어
져야 영안에 깊어진다. 그리고 당연히 이 눈이 열린만큼 하나님과 통
한다.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
혈이다.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가? 이것이 뭔지를 알면된
다. 이것이 뭔지를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
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 한
데로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구원의 기준이다. 심판의 기준이다.
세상에도 이것이 기준이다. 믿는 사람의 인생에만 이것이 기준이 아니
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기준이다. 왜 세상 사람이 망하고 저주
받아서 지옥가는가? 복음 때문에, 복음 몰라서, 안 믿어서. 우리가 하
나님과 통하는 만큼 기도되고 기도되는 만큼 약속 누릴 수 있다. 그래
서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다.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들어간다. 물은 없어도 된다. 물로써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들어오셔서 구원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왜 이야기 하셨나? 사실은 필요 없는건데? 첫째는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물은 죄 씻
음이다. 씻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물두멍이다.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죄 씻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편된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
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 때 이후로 절대 안 나간다.
죄 아무리 지어도 절대 나가는 일이 없다. 이처럼 죄 씻음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의 거듭남이 완성되는 것이다. 죄 씻음
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여
죄씻음과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한번에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구
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 수준의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이것을
몰랐다. 그러니 어린 아이같은 소리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눈이 없으니 예수님과 말이 안통하는 것은 둘째고, 통하
지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의 참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
아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방부제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연관된 모습이 보이
면 니고데모같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내려놔야 한
다. 그러니까 다 관계없이 찾아온 것 보면 진짜 제자 되었다. 복음을 알
면 올바른 영안이 열린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영안 없으면 하나
님과 안 통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예수님하고 대화하
는데 말이 안통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깊은 영안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된다.

그런데 영적인것에 조금 주의할 것은 올바르지 않은 영안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당과 닮아 있다. 당
연하다. 귀신이 준 영안이니까. 혹 교회 다니는 사람중에도 선지자니
뭐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보면 본색이 드러난다. 이
사람이 누군지 빨리 알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복음을 정확
하게 전달하면 못 듣는다. 괜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것 아닌 것이다.

한번은 터휴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조금
듣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들어야지
왜 기도를 하나? 아니냐 다를까, 그 이후에 계속 접촉을 안하려고 하
는 것이다. 영적으로 옆으로 나간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영안을 가지
고 바르게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더 깊어짐으로 하나
님과 24시간 소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내가 너희의 영생이다.

10절 이후에 꼭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이다. 니고데모는 영생 때문
에 왔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고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결론은 내가 너희의 영생이라
는 것이다. 15절, 16절은 내가 영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일만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다.
이 십자가가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 외에는 인간에게 아무
소망 없다. 그래서 죽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것갈
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인자가 들리는건 좋은데 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는가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뱀은 기분이 안좋다. 왜
뱀을 들었는가? 민수가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
들을 물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죽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
나님이 뱀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나올거라
고 했다. 말씀대로 했더니 다 나왔다. 왜 하필 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낫나는 것이다. 한동안 이해가 안되었었는데, 어느날 깨달았
다. 다르게 아니고 너희가 뱀에 물린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
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
겠냐. 하나님 말씀 못받으면 광야에서는 다 죽는 것이다. 니가 만일
앞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말씀을 못 받고 당연히
뱀에게 물릴 것이다. 당연히 죽는 것이다. 잊지 말아라. 마음에 담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는 것이
다.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
에. 이것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신 것이다. 주님은 오늘 니고
데모의 마음속에 그 궁금중에 대한 답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의
영생은 내게 있다. 내가 너의 영생이야. 내가 그 뱀처럼 들릴 것이니,
너는 그 때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도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 것
이다. 이것이 너의 영생의 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이 예
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답이요, 메시지이다.

사람에게 영생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누구든지 죽고,
죽고 나면 지옥이 기다리니 거기에서 나오는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가?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다. 이것
외에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 1:2절에 이야기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남는 것은 하
나 있는데, 영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이다. 너희 조상
아담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니 인생이 이렇게 되거야. 내
가 여기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을 준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가 너의 원수 뱀의 머리를 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 뿐 아
니라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다. 너는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안된다. 솔로몬이 이야기 했다. 내가 얼
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
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회복해
야 되고, 언약이 답이라는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
는가? 당연히 그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깊은
복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에 눈 열고 동의
가 되면 평생 복음 전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유일한 축복이다. 인간
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 행복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될 줄 믿는다. 이
모든 축복을 평생 누리는 영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